

무안중, 유관기관들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나서

무안 일로파출소·방법대 전역자회·무안중 학생회 등 30여 명 참여 무안중, “학교폭력 없는 무안중의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자고 다짐”

무안중은 최근 일로의 유관기관들과 학교 폭력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아침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전개된 캠페인에는 일로자율방범대를 비롯 일로파출소, 일로읍 번영회, 일로생활안전협의회, 방법대 전역자회와 무안중 학생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일로자율방범대에서는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홍보물과 빵과 음료수 및 형광펜 등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교폭력 없는 안전

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를 기원했다. 무안중에서도 고광현 교감을 비롯 학생부장과 학생회 임원들이 함께 하면서 학교폭력 없는 무안중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박관준 일로파출소장은 “무안중 학생들이 인사도 잘 하고 밝고 힘차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며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어 학

생들이 일탈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중 49회 졸업생인 박근일 자율방범대장은 “우리들의 후배이자 자녀들인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법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계도와 예방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캠페인에 함께 동참한 정한성 교장은 “아침 일찍부터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박관준 파



출소장, 박근일 자율방범대장, 김용완 번영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며 “지역사회가 본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런 캠페인을 전

개해주시 마음이 든든하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해안정화활동 실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10일 발포해수욕장 일대에서 ‘청정한 바다지킴이’(이하 청바지) 캠페인 일환으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과 함께 해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

10일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따르면 이날 해안정화작업은 학생해양수련원 주관 특별수련

과정 ‘일과 삶의 조화 캠프’에 참여한 교육연수원 직원 40명과 함께 진행되었다.

한편 청바지 캠페인 동안 트랙터를 이용해 지역주민이 처리하기 어려운 페그물, 대형 플라스틱 등 5t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김재환기자

광주교육연수원, ‘2023 연수운영자 역량강화 과정’ 성료

광주학생해양수련원 및 고흥과 연계, 새로운 비전 실현의 발돋움 계기 마련



광주교육연수원이 최근 연수운영담당 교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연수운영자 역량강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10일 교육연수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 및 고흥군과 연계하여

지역 상생 특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또 전 직원 화합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는 광주교육연수원으로서의 발전 계기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연수는 첫날 고흥 소재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및 갑재민속문화전시관, 조종현·조정래·김조혜 가족문학관에서 이뤄졌다. K콘텐츠로 주목받는 우리 전통 문화와 삶과 문학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주제였다. 이어 직원들은 오후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특화 프로그램인 ‘일과 삶을 조화롭게’ 참여해 직원 간의 소통 능력과 협동심을 길렀다.

다음날 교육연수원과 학생해양수련원 전체 직원이 함께 발포해변 정화 활동을 수행했다. 이어 ‘발포만호성’과 ‘충무사’를 방문해 정립 의식 함양 행사를 가졌다. 이곳에선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호 시절, 상관의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오동나무를 베어오라는 지시에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라 말한 일화가 전해져 온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 용정중,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 보성 용정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용정교육 공동체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학교 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학교장을 비롯하여 재학생 학부모 대표, 졸업생 학부모 대표, 학생자치회장은 물론 전남도교육청, 보성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용정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남교육의 대전환에 대한 방안을 안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정중학교는 앞으로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할 것이다.

보성=김택순기자

순천대 약학과 정승현 교수, 한독제석재단 약학부문 우수연구자 선정

선정된 의·약학 교수 및 연구원에 연구비 보조

순천대는 ‘제16회 한독제석재단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수여식’에서 ‘약물계량 모델링에 기반한 의약품들의 과학적 임상용법 탐색과 유효성 및 안전성 개선’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 순천대 약학대학 정승현 교수가 약학부문 연구지원자로 선정됐다.

순천대 정승현 교수는 개인 간 여러 약물 노출에 따른 체내 약물농도 및 약효반응 다양성의 정량적 상관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통해 약학 분야에 공헌해왔다.

이에 한독제석재단은 연구업적과 역량을 인정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받는 정밀약학 분야와 관련하여 집단 내 약물농도-반응 다양성의 계량화 분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16회 약학부문 우수연구 지원자로 선정했다.

한편, 한독제석재단은 한독 창업주 故 김신권 회장과 한독이 출연한 공익법인으로 장학 사업을 통해 매년 의대, 약대 장학생을 선정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과제 및



성과를 기준으로 선정된 의·약학 교수와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보조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